

인공지능 알파고, 첫 대국승리 '기선제압'

이세돌9단 패배 선언 4차례 남아있는 대국에서 이 구단 심리적 부담극복 관건



9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 포시즌호텔에서 열린 세기의 대결 '이세돌-구글 알파고 대국' 1국에서 이세돌 9단이 바둑돌을 놓고 있다.

이세돌9단이 9일 열린 알파고와의 첫 대국에서 패배를 선언했다. 앞으로 4차례의 대국이 남아있다.

첫 대국은 남은 경기의 분위기를 좌우한다. 점에서 승패에 상당한 영향을 끼칠 전망이다. 지난해 10월 알파고는 중국 프로선수 판후이 2단을 상대로 5전5승을 거뒀다. 판후이는 첫 대국에서 알파고에 진 뒤 연거푸 패배의 쓴맛을 봤다. 판후이가 심리전에 밀렸다는 분석이 쏟아졌다. 인공지능인 알파고는 감정의 동요가 전혀 없다.

이세돌 9단 대국을 지켜 본 전문가들은 알파고 기량이 5개월 전보다 강력하고 정교해졌다고 평했다.

강홍렬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이세돌9단이 아니라도 대국 마지막에 접어들면 사람이 질 수밖에 없다"며 "사람 두뇌의 신경세포는 1초에 10만 내외로 작동하는데 컴퓨터는 20조 단위라 작동하는 메커니즘 자체가 다르다"고 말했다.

강 위원은 이세돌 9단이 대국에서 저도 크게 상심할 필요는 없다고 평했다. 이번 대국에서 알파고가 이겼다고 인공

지능이 사람을 앞선다고 결론을 내리기는 어렵다는 것이다.

그는 "알파고는 인공지능이라기보다 모양을 판단할 수 있는 알고리즘을 컴퓨터에 의해 움직일 뿐 창조적인 생각은 할 수 없다. 인간은 실수를 통해서 배우고 창의력을 습득하는데 알파고는 실수란 개념이 없으니 발전에 한계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알파고가 바둑을 둘 때 인간의 직관을 모방했지만 뛰어넘을 수는 없다"며 "반(半)인공지능이 등장했더라도 인

간을 넘어선다는 점에 대해선 회의적이다. 알파고를 마치 영화 속 터미네이터가 나타난 것처럼 겁낼 필요가 없다"며 이세돌9단을 두둔했다.

김진호 서울과학종합대학원 빅데이터 MBA 교수는 대국 전부터 알파고의 완승을 예측했다. 그는 알파고가 5대국에서 전승을 거둘 것이라n 과격적 전망을 내놓았다.

김진호 교수는 "알파고가 완승한다. 지난해 10월 판후이 이길 때의 알파고와 다르다. 더 강해졌다"며 "구글은 이세돌 수준의 중국 선수들을 데려다 알파고와

연승 대국을 하게 했다. 구글은 그 대국에서도 일방적으로 이긴 결과를 바탕으로 자신있게 이세돌에 도전했다"고 밝혔다.

김 교수는 '알파고가 바둑을 모르면서도 알고 둔다'고 표현했다.

그는 "사실 사람들도 바둑을 감으로 둔다. 여기서 이렇게 두면(수)의 가치가 얼마고 이길 확률이 얼마라고 계산하기 어렵기 때문"이라며 "사람들이 전혀 못하는 계산을 알파고는 할 수 있다. 알파고는 '여기 두면 나한테 얼마나 유리하고 승률이 얼마가 될 것이다'를 판단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알파고는 그런 방법으로 수십만번씩 두었을 때의 통계를 바탕으로 착수 지점을 찾지 때문에 우세에 다가간다"며 "결국 알파고가 유리하다. 알파고는 감이 아닌 계산으로 두기 때문에 계속 상승세를 탈 것"이라고 내다봤다.

알파고를 총괄하는 구글 딥마인드의 데미스 허사비스 대표는 알파고 실력에 자신감을 드러냈다.

허사비스 대표는 "알파고는 프로기사보다도 많은 훈련을 했다. 30~35세의 프로기사들은 통상 1년에 1000건의 대국을 치르는데 알파고는 이미 10만건의 대국을 보고 수천건의 자가 경기를 치렀다"며 "알파고는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체력도 튼튼하다. 알파고 능력을 바둑뿐 아니라 헬스케어 등에 적용하고 싶다"고 밝혔다. /정해은 기자



고창 전통민예품 전승하는 '무장상자와 혼수' 전시회

고창 문화의 전당 전시실서 12일까지 자수·손바느질·천연염색·전통한지 프로그램 마무리함 결과물 선배

고창군전통민예품전승 '무장상자와 혼수' 전시회가 마련됐다.

고창문화의전당 전시실에서 오는 12일까지 열리는 이번 전시회는 맥전통자수(대표 박미애)가 주관하고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전통문화재단이 지원했으며 한빛원지력발전소가 후원했다.

이번 전시회는 지역 내 어르신들의 증언을 통한 고창의 민예품에 담긴 정신과 생활을 연구하여 지역의 특수성을 발전시키고 이를 군민들에게 선보일 수 있도록 마련됐다.

'무장상자와 혼수'는 지난 해 지역 전통문화 자원 발굴 지원사업(전통민예품 전승 분야)에 선정돼 그동안 전통자수, 전통손바느질, 천연염색, 전통한지 4개 팀이 각자 혼수와 관련한 체험과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해 왔다.

지난 달 프로그램을 마무리하고 그 결과물을 전시하는 이번 전시회는 뜻깊다.

특히 답사를 통해 만난 부안면 사창마을, 고창읍 사계마을, 고수면 원광삼마을에 살고 있는 어르신들이 직접 전시회에 참여해 전시의 의미를 더하고 있다.

맥전통자수 박미애 대표는 "사업을 시작하면서 단기적인 전승에만 치중하는 것이 아니라 고창의 민예품 발굴과 함께 일상생활에서도 사용할 수 있는 상품 개발이 될 수 있도록 연구를 해 나가고 있다"며 "앞으로도 고창의 전통민예품 발굴과 관련 콘텐츠 개발에 주력하겠다"고 말했다. /고창=김영식 기자



원오류광장에서 마을주민 등 150명이 축제에 참석했다.

정읍북면 원오류 마을 '단속곳춤 당산제'

여인들의 단속곳 춤으로 민속학계의 각별한 관심을 받고 있는 북면 원오류 마을 단속곳춤 당산제가 음력 2월 1일인 지난 9일 원오류광장에서 열렸다.

식전행사인 농악공연으로 시작된 행사에는 이경록 원오류마을당산제 보존위원장을 비롯 마을주민 등 150여명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소망을 담은 소원 글씨를 시작으로 아무 탈 없이 한 해를 보낼 수 있기를 기원했고, 마을의 안녕과 발전을 기원하는 부녀자들의 단속곳 춤과 제를 올리며 행사를 마무리 했다.

원오류마을 당산제는 남자들이 주관이 되는 여느 당산제와는 달리 여성들이 제를 지내고 부녀자들이 단속곳(옛 여인들이 입었던 속곳으로 기량이 부분이 터져 있다)을 머리통에 뒤집어 쓰고 바지통에 팔을 넣고 단속곳 자락을 흔들며 춤을 추는 단속곳춤으로 유명하다.

단속곳 춤은 주인의 말을 사모하다 상사병으로 죽었다는 총각머슴의 넋을 달래고자 아내들이 속옷을 머리에 쓰고 바지통에 팔을 넣고 춤을 추는 해원굿으로 알려져 있다. /정읍=김대환 기자

정읍시립박물관,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

전통 손누비기법 등 교육 진행

정읍시립박물관(이하 시립박물관)이 올해도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으로 활성화에 나서고 있다.

먼저, 국립민속박물관에서 공모한 민속생활사박물관 협력망 지원사업을 운영한다. 시립박물관은 이의 일환으로 전통문화에 관심 있는 성인 여성들을 대상으로 박물관을 누비자, 박물관 규방공예를 마련했다.

옛 여인들의 전통 손누비기법을 익힐 수 있도록 하고 전통문화 체험기회를 제공한다는 취지다. 성인 여성 25명을 선착순으로 모집하며 이달 22일부터 5월 3일까지 7회에 걸쳐 교육을 진행한다.

오는 7월에는 개관 4주년을 기념 지역주민과 관람객에게 다양한 문화향유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박물관 주간 특별체험'도 마련할 계획이다.

다양한 체험교육을 통해 제작된 우수 체험 작품은 연말에 박물관 기획전시실에서 전시할 예정이다.

정읍시립박물관의 전시에 대한 심화학습 및 해설 실습을 통한 품격 있는 자원봉사자 육성을 위해 10월 중 16회에 걸쳐 중·고등학교를 대상으로 '청소년 박물관 해설사 양성교육'도 운영할 계획이다.

시립박물관 또 학교와의 연계교육으로 '토요 박물관 체험 학교'와 맞춤형 체험학교를 월 1회 운영하고 있기도 하다. 매월 마지막 수요일인 '문화가 있는 날'에는 애니메이션 상영, 연극 공연, 음악 연주회 등을 운영 중이다.

한편 박물관 운영 프로그램의 신청 및 기탁 자세한 사항은 박물관 홈페이지(<http://museum.jongup.go.kr>)를 참조하면 된다. /정읍=김대환 기자



수강생들 교육모습

전주한지축제 조직위원장 전북대 이남호 총장 선임

전북대학교 이남호 총장이 제 20회 전주한지문화축제 조직위원장에 선임됐다.

전주한지문화축제 조직위원회는 지난 8일 위원회를 열고 오는 5월 5~8일 전주한옥마을일원에서 열리는 행사 조직위원장으로 이 총장을 선임했다고 9일 밝혔다.

이 총장은 서울대를 졸업하고 동 대학원에서 석·박사 학위를 받은 뒤 전북대 산학협력단장을 지냈다. 지난 2014년부터 전북대 제17대 총장을 맡고 있으며, (사)캠텍종합기술원 이사장, (재)전북산조경제혁신허터 이사장 한국대학교육협의회 대학평가인증위원장 등으로 활동하고 있다. /정해은 기자

특별로 풀어보는 오늘의 운세 홍주미 백운철학연구소장 H.P: 010-6890-1468, 홈페이지: <http://www.phislab.com/> <2016년 3월 10일>

<p>▷쥐띠 46년생: 도와줄 사람이 나타날 것이니 큰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되겠다. 80년생: 일찍이 부분에서 능력을 인정받은 운. 72년생: 이성과의 관계에 신경을 많이 써야 하는 운이나. 84년생: 구실수가 따르는 운이니 언행에 주의를 요한다.</p>	<p>▷소띠 49년생: 다른 사람과 충돌하는 일이 생기니 주의하라. 61년생: 여성은 남자로 인해 마음상한 일이 생긴다. 73년생: 모든 일을 조심하고 중요한 일은 신중하게 마음 기다려 진행하는 것이 좋겠다. 88년생: 편 가르기 하는 실수를 범하기 쉬운 때이므로 주의하라.</p>	<p>▷호랑이띠 50년생: 남성은 여성의 조언을 구하라. 밑줄이 들어 있다. 62년생: 타인의 이익을 너무 의심하지 마라. 이리저리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74년생: 순재수와 실물수가 따르는 운. 86년생: 이성과 함께 진행하면 사적인 감정이 생길 수 있다.</p>	<p>▷토끼띠 51년생: 정신적으로 편안하지 않으니 마음을 다스려라. 63년생: 노력한 만큼의 대가를 받는 운. 75년생: 처리하는 일이 잘 되다가 중간에 막히게 되니 대비하면서 진행하라. 87년생: 다른 사람의 의견을 존중하면서 타협하라.</p>
<p>▷용띠 52년생: 하고자 하는 일에 방해자가 나타나니 주위를 살펴 보고 결계하라. 64년생: 동기진으로 인해 성사신 일이 발생. 76년생: 무리한 부력이 아니라면 흔쾌히 들어줄 것이다. 88년생: 이성운이 좋아지는 운이다.</p>	<p>▷범띠 53년생: 벼슬은 덕이 쌓이니 후에 반드시 들러받게 될 것이다. 65년생: 경쟁자로 인해 스트레스를 받는 운이다. 피할 수 없으면 즐겨라. 77년생: 인덕은 바리치 마라. 혼자 해결해나가야 한다. 89년생: 자신이 예상했던 것보다 좋은 결과를 맞을 수 있는 운이다.</p>	<p>▷말띠 54년생: 금전 지출이 심해지는 운이니 계획적인 지출이 필요하다. 66년생: 어려움에 처해 있다면 뒷사람에게 도움을 요청하라. 78년생: 경이하게 다치거나 아플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하다. 90년생: 정신이 뚜렷하지 않으니 매사에 집중력을 잃지 마라.</p>	<p>▷양띠 55년생: 다른 사람의 감언이설을 조심해야 하는 운. 67년생: 문서에 결함이 비추니 계약을 하거나 문서로 주고 받기에 좋은 운이다. 79년생: 건강에 대한 신경써라. 우려했 질병을 주의해야 하는 운. 91년생: 시소한 일에도 예민하게 반응할 수 있으니 마음을 다스려라.</p>
<p>▷원숭이띠 56년생: 다른 사람의 말이 나쁘지 않아야 한다. 68년생: 뒷사람에게 능력을 인정 받을 수 있는 운이니 적극적인 행동이 타인에게는 공격적으로 보일 수 있음을 알고 행동하라. 80년생: 자신있던 일에 실수를 범할 수 있다. 92년생: 손이러 사람으로 인해 신경이 곤두서는 운.</p>	<p>▷닭띠 57년생: 금전적으로 좋지 못한 상황이다. 69년생: 번 돈을 가지면 후한일이 많으니 기존의 상황 그대로 유지시켜라. 81년생: 경쟁자로 인해 스트레스 받을 일이 생긴다. 93년생: 육은일 헛타가 밭 밋는 것이니 나쁘지 말고 뒤로 물러나라.</p>	<p>▷개띠 48년생: 너무 친근하게 다가오는 사람을 경계하라. 59년생: 좋은 운이 들었으니 계약을 하기에 좋고 이동하기에 좋은 운이다. 70년생: 금전적으로 손해가 따르니 투자는 불리한 운이다. 82년생: 하고자 하는 일에 어려움이 따른다면 뒷사람의 도움을 받아라.</p>	<p>▷돼지띠 47년생: 건강에 주의해야 하는 운이다. 59년생: 모임을 갖거나 회합을 하기에 좋은 기회가 되겠다. 71년생: 소홀해진 동기진과 화해에 좋은 운이니 마음을 열고 손을 내밀어라. 83년생: 매사 서두르면 불리하니 급할수록 차분해지는 것이 좋겠다.</p>